논어 5편 공야장 9장 · 원문·풀이

子謂子貢曰：「女與回也孰愈？」對曰：「賜也何敢望回！回也聞一以知十，賜也聞一以知二。」子曰：「弗如也。吾與女，弗如也。」

독음 · 자위자공왈 여여회야숙유 대왈 사야하감망회 회야문일이지십 사야문일이지이 자왈 불여야 오여여 불여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자공은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안회에 비해 자신은 둘을 안다고 했다. 공자는 그가 안회만 못하다는 평가에 동의했다. 이 장에는 다른 해석도 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謂 고할 위 위 / 貢 바칠 공 공 / 曰 가로 왈

女 계집 녀 여 / 與 너울너울할 여 여 / 回 돌 회 회 / 也 어조사 야

孰 누구 숙 숙 / 愈 나을 유 유 / 對 마주볼 대 대 / 賜 줄 사 사

何 어찌 하 하 / 敢 감히 감 감 / 望 바랄 망 망 / 聞 들을 문 문

一 한 일 일 / 以 써 이 이 / 知 알 지 / 十 열 십 십

二 두 이 이 / 弗 아닐 불 불 / 如 같을 여 여 / 吾 자기 오 오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